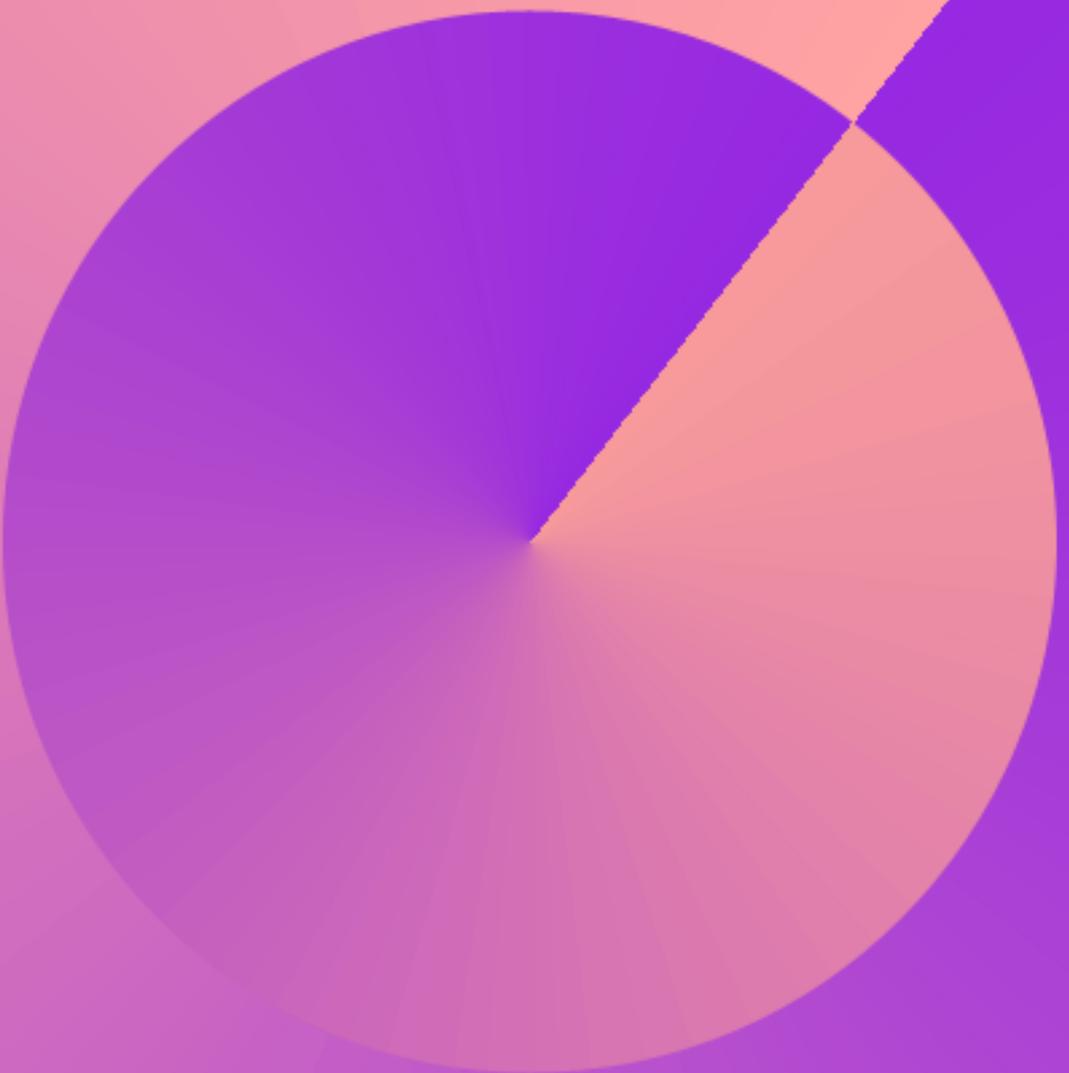


선거구와

사례분석



법정식당

문제모음집

T E A M L & P

CONTENTS

선거구

들어가면서
기본적 어휘는 깔고 가자
단계적 공부
풀이 방법과 팁

사례분석문제

들어가면서
사례분석문제란?
사례설명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
실전적 문제풀이 감각이란?
풀이 방법과 공부

CHAPTER 1

선거구

“정치는 머리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머리로만 하는 일은 아닙니다.”

- Max Weber

들어가면서

<1안> 선거구 1-2, 3-4, 5-6을 통합하여 선거구를 3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대표를 선출한다. 정당은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선거구에서 2인까지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다.

-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2인이 당선 가능한 경우 2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 1인을 공천한다.

<2안> 선거구 모두를 통합하여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며, 정당의 득표 비율에 의석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선거구 문제는 숫자가 바뀌고, 형식만 바뀔 뿐, 본질은 같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나, 바로 “표 변환을 얼마나 빠르게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각 안에 적용을 정확히 하느냐”입니다. 평가원은 더 어렵게 낼 수 없습니다. 다만, 말바꾸기를 통해 여러분의 빈틈을 파고들 뿐입니다. 개념을 알고 모든 걸 깨우친 척 하는 여러분들에게, 당황과 동시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겁니다.

선거구는 대부분 비례대표제와 선거구 통합. 두 유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이상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없으며, 개념부터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더 깊은 개념을 요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꾸준히 기출을 풀어보실 겁니다. 기출을 연습하면 무언가가 달라지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수능 시험장에 가면 떨리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 상황에서 맞닥뜨릴 선거구 문제를 보면 평소와 달리 더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틀리게 됩니다.

연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란 말이 있습니다. 선거구를 알면, 최소한 멘탈이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도 가능합니다. 선거구를 알면, 충분히 만점도 넘볼 수 있습니다. 선거구를 연습하려만 하지 말고, 알려고 하세요.

기본적 어휘는 깔고 가자

각각 2019학년도 수능 20번 2안과 2019학년도 9월 모평 20번 2안, 2019학년도 6월 모평 18번 1안입니다. 수능의 경우에는 여러 조건들이 붙어있지만, 진하게 처리한 부분의 어휘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쉽게 정리가 된 것이 2019년 6월 모평 18번 1안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은 비례대표제라는 점입니다.

- 〈2안〉 선거구 모두를 통합하여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며,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에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한다.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의석 할당 정당의 1석씩 배분한다. 단, 의석 할당 정당은 전체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 〈2안〉 선거구 모두를 통합하여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며, 정당의 득표 비율에 의석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 〈1안〉 선거구 모두를 통합하여 전국을 한 개의 선거구로 만들고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매년마다 나오는 어휘는 결국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저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최소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은 무조건 나가 떨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평가원이 어렵게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와 교과서를 통해 배운 개념에는 명확한 한도가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빠질 수 밖에 없으니, 시험은 무조건 그 한도 내에서 내야만 합니다. 필연적으로, 평가원은 그러한 개념을 무조건 어렵게 설명하고자 하는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기출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들 짚은 익혀두는겁니다.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구는 타임어택입니다. 보기들 하나하나가 허들이 되어 학생들을 지독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허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허들을 넘기 위해 얼마나 높이 뛰어야 할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지금 저런 어휘들을 이해하는 절차인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다른 부분에도 충분히 있을 동일어휘, 그 어휘들에 붙는 조건들을 분리해서, 결국 이 개편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판단입니다.

단계적 공부와 풀이 방법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 표)

정당 선거구	A당	B당	C당	D당	E당	합계
1	20	40	0	0	0	60
2	30	15	15	0	0	60
3	10	35	10	5	0	60
4	0	15	5	0	0	20
5	5	0	0	15	20	40
6	15	5	0	0	40	60
합계	80	110	30	20	60	300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선거구〉

1	2	3
4	5	6

〈자료 1〉

(단위 : 명)

A1 (300)	A2 (300)	
	B1 (200)	B2 (200)
	B3 (100)	B4 (100)
A3 (200)	A4 (200)	

〈자료 2〉

(단위 : %)

선거구 정당	A1	A2	A3	A4
갑	60	30	20	10
을	30	50	60	50
병	10	20	20	40

선거구 문제는 2017 수능에서 사실상 처음 등장한 유형입니다. 그 이전의 문제들은 선거구라기보단, 선거결과 분석 문제였고, 선거구라는 새로운 유형을 완성하기 위한 시행착오 단계로서 만들어지던 문제였습니다. 2018년 수능에서는 선거구 문제의 난이도가 한층 상향조정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법과 정치는 ‘타임어택’이 중요한 시험이라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개념들을 실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제작해야한다는 것이 평가원의 임무였고, 그리하여 만들어진 문제가 바로 선거구였습니다.

선거구 문제의 스타일이 정립된 순간부터 학생들이 변별되기 시작했고, 이 기세는 충분히 기출이 쌓이고, 강사들의 문제분석이 어느정도 완성될 때 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의 유형을 확립해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하나하나 파악해 나가고, 그 과정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거구부터 파고들겠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 표분석을 정확히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직접 노트를 펼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를 작성해나가는 방법을 기르셔야 합니다.

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얼추 길러내셨다면, 이제 선거구를 통합할 때의 표 재가공 방법을 확립하시고, 그에 맞는 능력을 길러내셔야 합니다. 그것 또한 아까 말한 방법과 같습니다.